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1. 19.

전남농업정보

18
VOL

주간 기상전망

축산물 사육동향

전분기대비 한·육우·오리 감소, 젓소·돼지·산란계·육계 증가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쌀, 양념채소, 과일, 축산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입 동향

'14년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61.9억불로 전년 대비 8.1% 증가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국내 사육 염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개발
온실가스, 차량 이동형 측정 장치로 바로 진단

정책동향

전남도, 공급과잉 겨울배추 시장격리로 가격 안정 기대
농업정책자금 3조 2천억 원에 대해 금리 인하 실시

사업신청 안내

2015년도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신청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기압골의 영향으로 22일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다시 25일 오후부터 27일까지 비가 오겠음. 그 밖의 날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축산물 사육 동향(통계청)

- 전분기대비 한·육우·오리 감소, 젓소·돼지·산란계·육계 증가

☼ 농축산물 가공·출하 및 가격동향(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공식품** : 간장(샘표) 4,764원/ℓ, 고추장(대상) 1,044원/100g, 김치(대상) 6,847원/kg, 두부(풀무원) 1,182원/100g
 - 전년대비 간장 2.7% 상승, 고추장 66.2% 하락, 김치 12.7% 상승, 두부 7.0% 상승
- ▶ **식량작물** : 쌀 41,400원/20kg(전년보다 하락)
 - 쌀 소비 부진 및 가격반등 부재로 가격 약세 전망
- ▶ **엽근채소** : 배추 380/1kg, 무 430원/1kg(전년보다 하락)
 - 배추는 대내외적인 소비부진으로 하락 전망
 - 무는 지속적인 소비 부진 및 출하량 집중으로 하락 전망
- ▶ **과 채 류** : 애호박 27,200천원/8kg, 딸기 12,400원/1kg(전년보다 하락)

- 애호박은 매잔품 증가와 소비의 부진으로 하락 전망
- 딸기는 전반적으로 고단가에서 평준화되는 상황이며 상승 전망
- ▶ **과 일 류** : 사과 55,400원/15kg, 배 35,600원/15kg(전년보다 하락)
 - 딸기·감귤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약보합 전망
- ▶ **축 산 물** : 돼지고기 1,897원/100g(전년보다 상승)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비둔화로 가격하락 전망

※ 농수산식품 수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14년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61.9억불로 전년대비 8.1% 증가

※ 농업기술정보(농촌진흥청)

- ▶ 국내 사육 염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개발
 - 염소개체식별시스템 특허 출원, 불법 유통 막고 개량 가능할 듯
- ▶ 온실가스, 차량 이동형 측정 장치로 바로 진단
 - 첨단 장비 탑재로 축산 현장서 실시간 측정

※ 정책동향(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전남도, 공급과잉 겨울배추 시장격리, 가격 안정 기대
- ▶ 가축분뇨 처리사업 신청 하세요!
- ▶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 농업정책자금 3조 2천억 원에 대해 금리 인하 실시
-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세부 실천계획 발표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미국의 에탄올 가격, 사상최대 공급증가로 9년래 최저치 달성
- ▶ 해외 곡물시장 현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가격, 미국의 밀 파종이 예상보다 저조한 편으로 4주 연속 하락세
 - 옥수수, 풍부한 세계 옥수수재고량에 따라 약보합
 - 대두, 지난해 최대 수확에 이어 최대 대두공급량으로 약세

☼ 고소득 농업사례(한국농어민신문)

- ▶ 신희찬 식품명인 전수자
 - 수 백년 전통의 제다법,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2015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 신청
 - 기간 / 장소 : 각 시군별 공고 / 읍면사무소
 - 지원 대상 : 2ha미만 과수·채소 등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수도작 제외)
 - 지원 단 가 : 농가당 1동 3평(9.9㎡)기준 50%보조금 지원,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사업 내용 : 9.9㎡~33㎡규모의 컨테이너·판넬식 냉동·냉장 저온저장고 설치
- ▶ 2015년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 기간 / 장소 : '15. 1. 31 까지 / 읍면사무소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대 상 사 업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 지 원 내 용

- 사업비 기준 단가 : 20천원/m²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 기 간 / 장 소 : '15. 1. 31 까지 / 읍면사무소

· 지 원 대 상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대 상 사 업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2015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 기 한 / 장 소 : '15. 1. 2 ~ '15. 2. 11 까지 / 읍면사무소

· 지 원 대 상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대 상 사 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지 원 내 용 : 연리 1%, 시설·운영자금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 19.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19)	전주 (1/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41,400	41,400	41,400	43,600	40,320	↓ 5.0	↑ 2.7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8,800	149,400	182,800	↓ 7.0	↓ 24.0
	고구마(밤)	10kg	22,600	22,600	20,880	18,600	25,487	↑ 21.5	↓ 11.3
	감자(수미)	20kg	23,000	23,000	21,320	20,200	30,683	↑ 13.9	↓ 25.0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380	380	-	470	-	↓ 19.1	-
	양배추	10kg	5,000	5,000	5,000	5,200	7,473	↓ 3.8	↓ 33.1
	오이(다다기계통)	10kg	57,667	57,000	57,867	59,833	57,639	↓ 3.6	0.0
	애호박	8kg	27,200	25,200	28,840	32,200	29,210	↓ 15.5	↓ 6.9
	토마토	10kg	27,200	27,200	22,800	35,300	32,290	↓ 22.9	↓ 15.8
	무(월동)	1kg	430	450	452	425	-	↑ 1.2	-
	당근	20kg	16,200	16,000	16,640	20,100	22,733	↓ 19.4	↓ 28.7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30,000	830,000	680,000	827,333	↑ 20.6	↓ 0.9
	풋고추	10kg	46,600	52,600	54,200	79,050	58,367	↓ 41.0	↓ 20.2
	마늘(난지)	10kg	34,200	34,200	33,800	27,800	34,600	↑ 23.0	↓ 1.2
	양파	1kg	520	520	520	803	849	↓ 35.2	↓ 38.8
	대파	1kg	1,200	1,160	1,500	1,230	1,633	↓ 2.4	↓ 26.5
	파프리카	5kg	30,600	30,000	28,080	33,400	36,760	↓ 8.4	↓ 16.8
	방울토마토	5kg	16,200	17,000	12,600	20,800	19,450	↓ 22.1	↓ 16.7
딸기	1kg	12,400	11,600	13,640	12,700	11,403	↓ 2.4	↑ 8.7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55,400	55,400	54,520	92,850	82,250	↓ 40.3	↓ 32.6
	배(신고)	15kg	35,600	35,200	34,000	47,950	46,463	↓ 25.8	↓ 23.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19)	전주 (1/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4,000	514,000	514,000	534,000	563,000	↓ 1.9	↓ 6.9
	들깨	45kg	430,000	430,000	425,200	436,000	371,200	↓ 1.4	↑ 15.8
	새송이버섯	2kg	7,800	7,800	7,800	9,150	-	↓ 14.8	-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556	6,244	6,714	6,283	6,617	↑ 4.3	↓ 0.9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97	1,869	2,010	1,609	1,598	↑ 17.9	↑ 18.7
	닭고기	1kg	5,870	5,310	5,055	5,472	5,097	↑ 7.3	↑ 15.2
	계란(특란)	10개	2,005	1,990	1,990	2,027	1,859	↓ 1.1	↑ 7.9
	우유	1리터	2,548	2,548	2,546	2,537	2,250	↑ 0.4	↑ 13.2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1.19.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782 천원	4,455 천원	4,135 천원	↑ 7.3	↑ 15.6
	거세	5,157 "	5,429 "	5,379 "	↓ 5.0	↓ 4.1
송아지 (6~7월)	암	1,890 "	1,755 "	1,477 "	↑ 7.7	↑ 28.0
	수	2,400 "	2,367 "	2,253 "	↑ 1.4	↑ 6.5
육우(600Kg)		3,648 "	3,678 "	2,820 "	↓ 0.8	↑ 29.4
젓소수송아지(7일령)		39 "	39 "	15 "	-	↑ 160.0
돼지(110kg)		342 "	393 "	275 "	↓ 13.0	↑ 24.4
육계(원/kg)		1,581 원	1,718 원	1,588 원	↓ 8.0	↓ 0.4
계란(원/특란10개)		1,289 원	1,298 원	1,483 원	↓ 0.7	↓ 13.1
오리(원/kg)		2,166 원	2,666 원	2,091 원	↓ 18.8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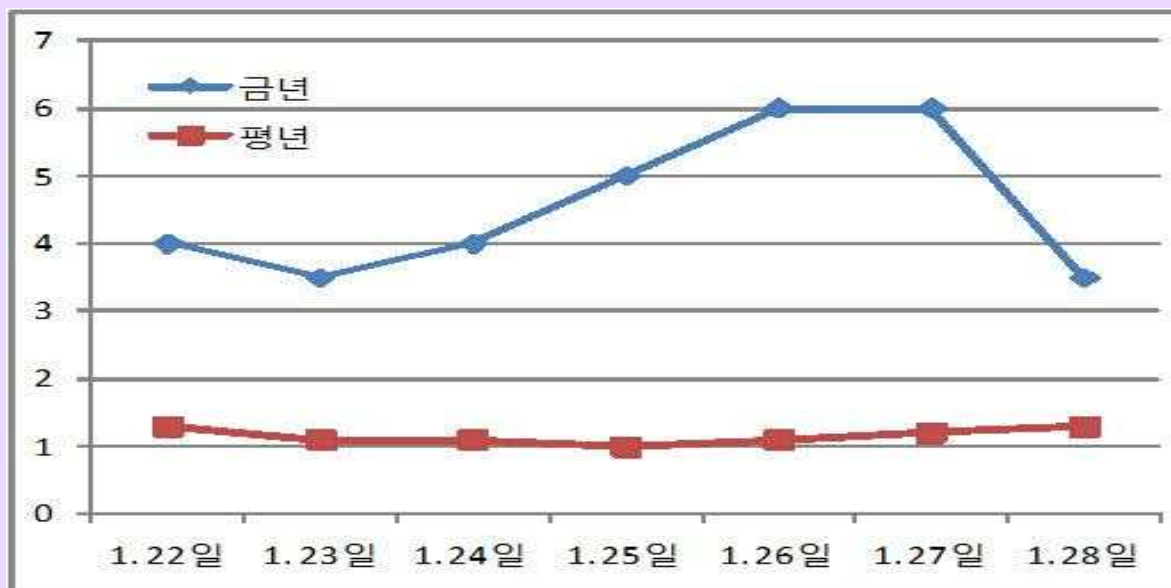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4.6	1.2	3.4	7.0	5.6	1.4	2.1	-2.0	4.2	1.2
1. 22(목)	4	1.3	2.7	6	5.6	0.4	2	-1.8	3.8	1.8
1. 23(금)	3.5	1.1	2.4	7	5.4	1.6	0	-2	2	1.6
1. 24(토)	4	1.1	2.9	8	5.4	2.6	0	-1.9	1.9	1.5
1. 25(일)	5	1	4	8	5.5	2.5	2	-2.1	4.1	1.2
1. 26(월)	6	1.1	4.9	8	5.6	2.4	4	-2.3	6.3	0.8
1. 27(화)	6	1.2	4.8	7	5.9	1.1	5	-2.1	7.1	0.7
1. 28(수)	3.5	1.3	2.2	5	6	-1	2	-2	4	0.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2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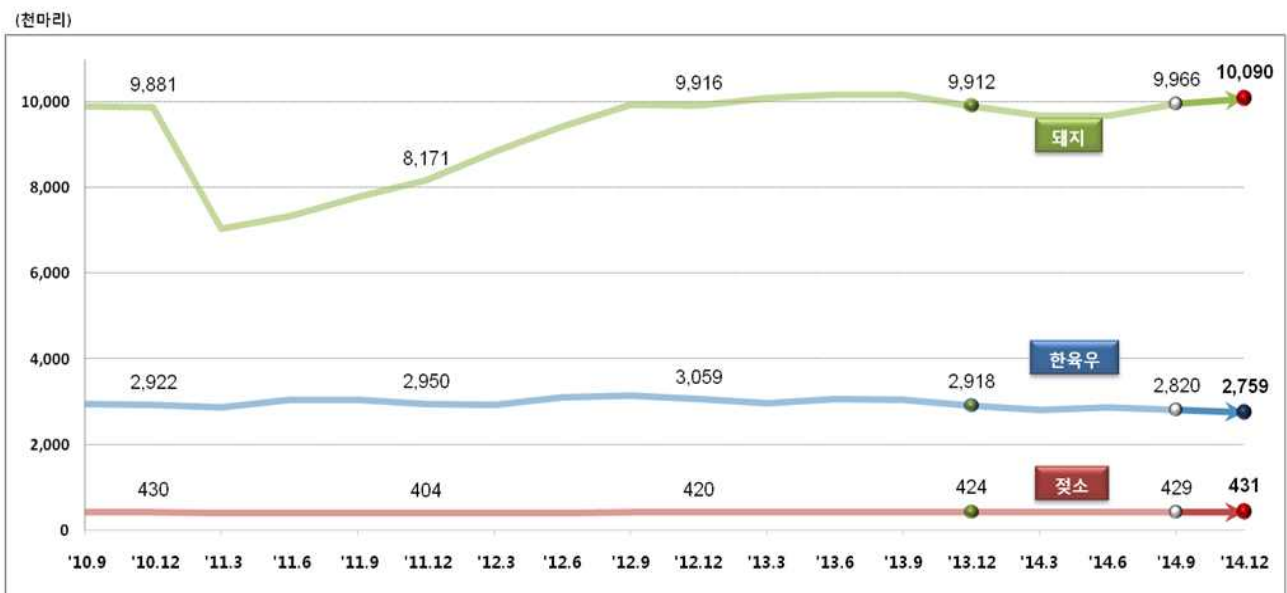
<평균 기온(°C)>

2. 축산물 사육 동향

전분기 대비 한·육우·오리 감소, 젓소·돼지·산란계·육계 증가

-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275만 9천 마리로 전분기대비 6만 1천 마리 (-2.2%), 전년동기 대비 15만 9천 마리(-5.4%) 각각 감소
 - 송아지 생산 감소 등에 기인
- 젓소 사육마릿수는 43만 1천 마리로 전분기대비 2천 마리 (0.5%), 전년동기대비 7천 마리(1.7%) 각각 증가
 - 지속적인 원유수취가격 호조에 따른 송아지 생산 증가 등에 기인
 - * 원유수취가격(낙농진흥회): ('13.9~11월) 1,085 → ('14.6~8월) 1,074 → ('14.9~11월) 1,091 원/ℓ
- 돼지 사육마릿수는 1,009만 마리로 전분기대비 12만 4천 마리 (1.2%), 전년동기대비 17만 8천 마리(1.8%) 각각 증가
 - 지속적인 가격호조에 따른 모돈 증가 및 연말특수에 대비한 출하지연 등에 기인
 - * 돼지경락가격(농업협동조합중앙회) : ('13.9~11월) 3,771 → ('14.6~8월) 5,328 → ('14.9~11월) 5,035원/kg

< 한·육우, 젓소, 돼지 사육마릿수 동향 >



□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6,767만 4천 마리로 전분기대비 241만 1천 마리 (3.7%), 전년동기대비 285만 마리(4.4%) 각각 증가, 육계는 7,774만 6천 마리로 전분기대비 190만 마리(2.5%), 전년동기대비 125만 9천 마리(1.6%) 각각 증가

○ 산란계는 지속적인 산지계란가격 호조에 따른 입식증가 및 노계도태 지연 등에 기인

*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 ('13.9~11월) 1,446 → ('14.6~8월) 1,393 → ('14.9~11월) 1,378원

** 6개월이상 마릿수: ('13.12) 4,887→ ('14.6) 4,734 → ('14.9) 4,881 → ('14.12) 5,038만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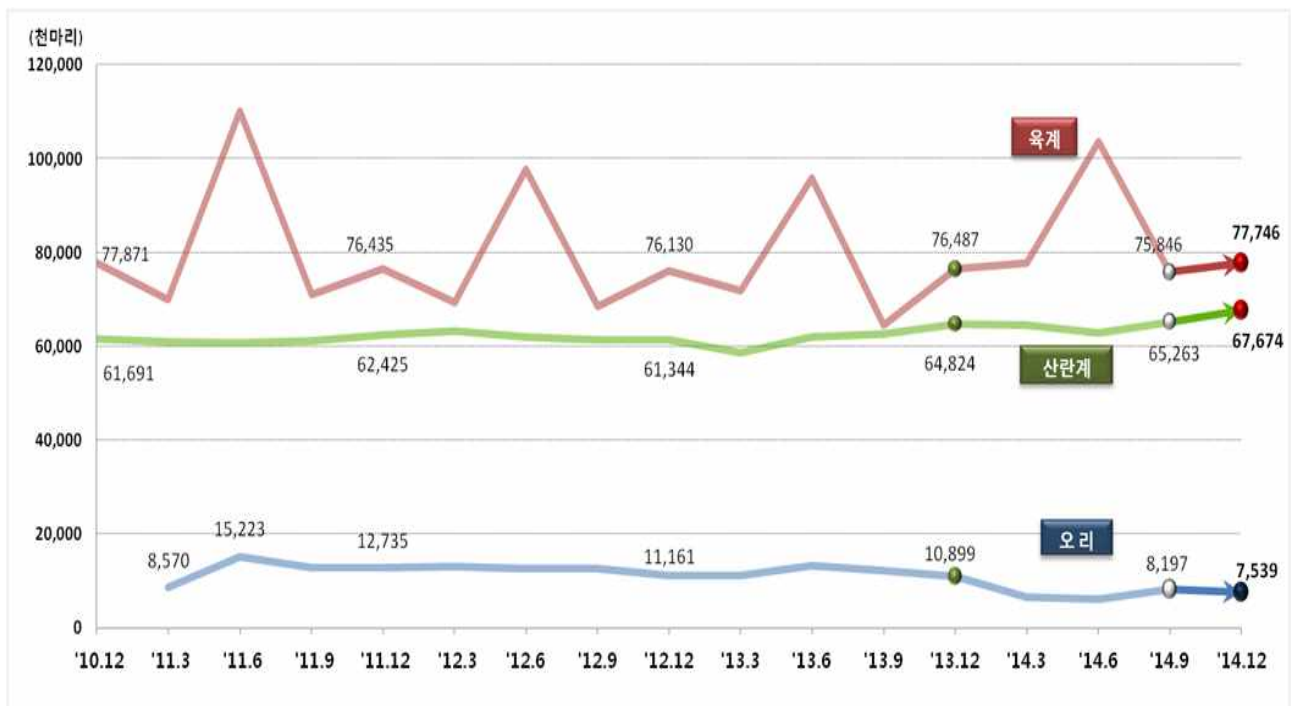
○ 육계는 연말특수에 대비한 입식증가 등에 기인

□ 오리 사육마릿수는 753만 9천 마리로 전분기대비 65만 8천 마리 (-8.0%), 전년동기대비 336만 마리(-30.8%) 각각 감소

○ AI 발생으로 인한 폐사 증가 및 입식지연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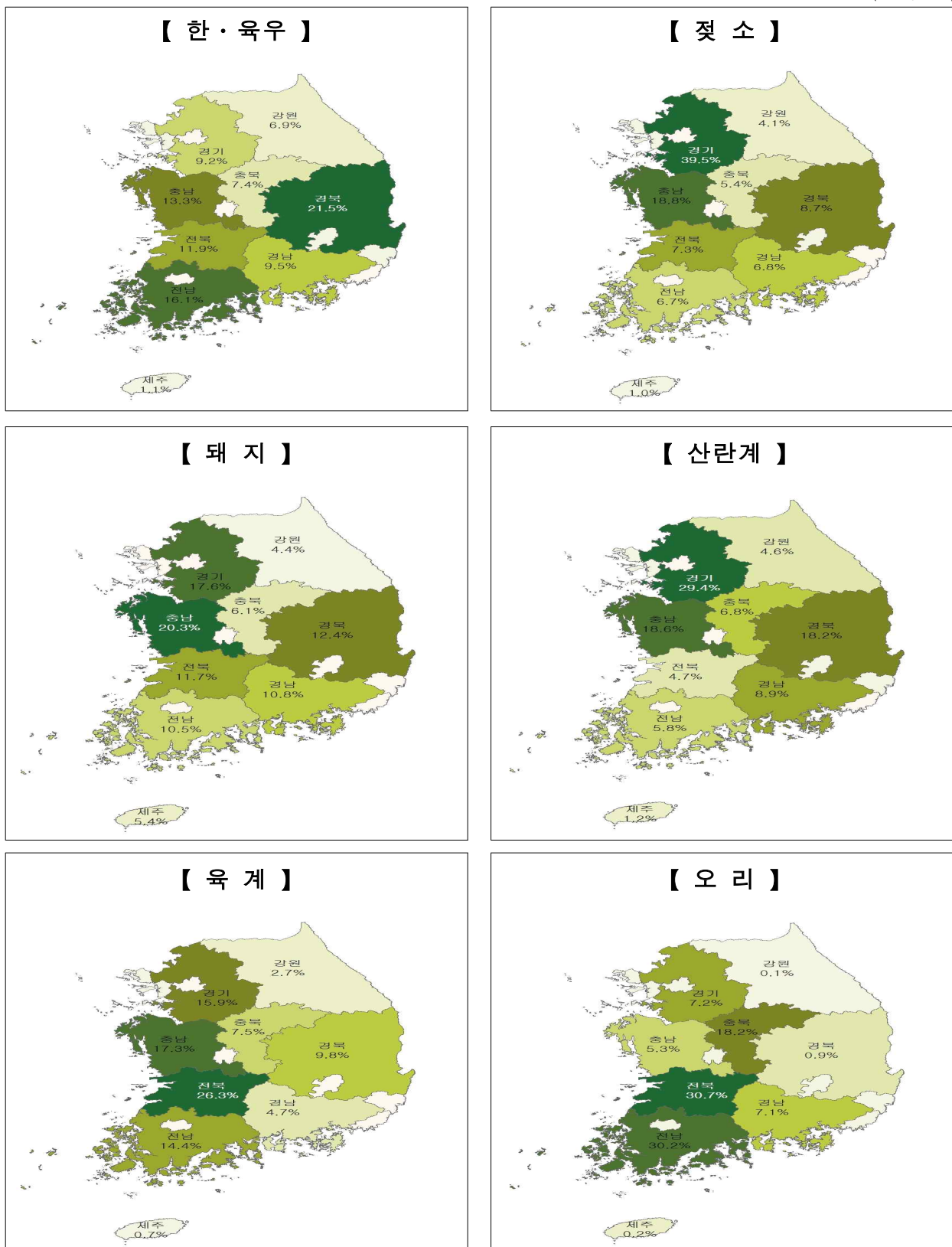
* AI 오리 살처분 현황(11.30현재, 농식품부) : 52만 6천 마리(종오리, 육용오리 포함)

< 닭(산란계, 육계) 및 오리 사육마릿수 동향 >



□ 지리정보시스템(GIS)로 본 사육마릿수 현황

(단위: %)



* 출처 : 통계청(15.1.9.일자)

3.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추) 1월 가격 배추1kg에 380원
 - 배추는 대내외적인 소비부진으로 하락 전망
- (무) 1월 가격 1kg에 430원
 - 무는 지속적인 소비 부진과 출하량 집중으로 하락세 전망

과 채 : 애호박, 딸기

- (애호박) 1월 가격 8kg에 27,200원
 - 애호박은 매잔품 증가와 소비의 부진으로 하락 전망
- (딸기) 1월 가격 1kg에 12,400원
 - 딸기는 전반적으로 고단가에서 평준화되는 상황이며 상승 전망

과 일 : 사과, 배, 감귤

- (사과) 1월 가격 15kg에 55,400원
 - 제철과일인 딸기·감귤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약보합세 전망
- (배) 1월 가격 15kg에 35,600원
 - 배는 저장량 많아 신고 가격은 당분간 전년보다 낮은 약세가 지속될 전망
- (감귤) 1월 가격 10kg에 16,600원
 - 간식용 가정소비 및 요식업소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량이 충분하여 보합세 전망

4.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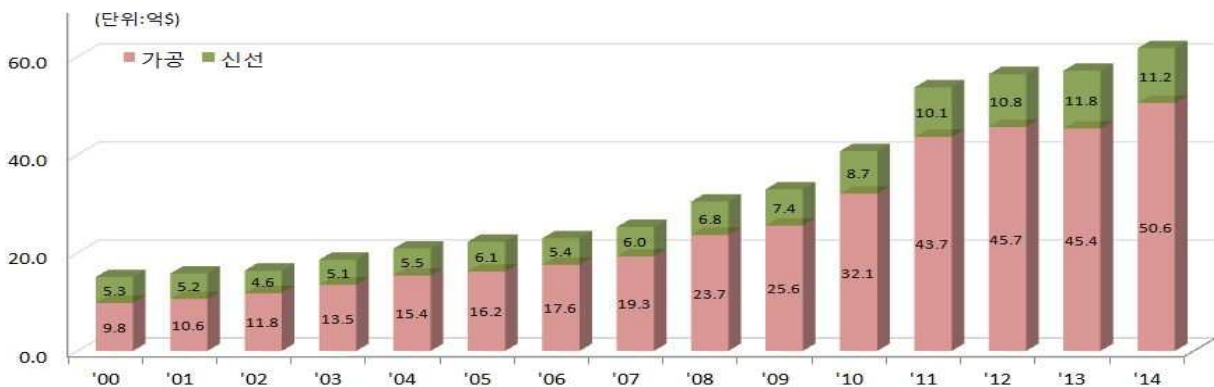
- '14년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61.9억불로 전년대비 8.1% 증가
 - 가공식품은 전년대비 11.4% 증가한 50.6억불, 신선농산물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11.2억불을 기록했다.
 - 다만,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으나, 엔저 등의 영향으로 수출액은 오히려 4.9% 감소

< 2014년 농림축산식품 부류별 수출실적 >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13년	'14년	증감률(%)
	금액	금액	금액
총계	5,724.6	6,186.4	8.1
- 신선농산물	1,180.5	1,122.8	△4.9
- 가공식품	4,544.1	5,063.6	11.4

<연도별 농림축산식품 수출 동향>



- 지난해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은 지속되는 엔저와 러시아의 EU 농산물 금수, 각 국의 검역·위생 등 비관세장벽 강화 등 대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 연평균 엔화 추이(원/100엔) : ('12) 1,413 → ('13) 1,123 → ('14) 996

* '14년 기준, 농식품과 국가 전체산업 수출증가율 비교 : (농식품) 8.1%, (전체산업) 2.4%

□ 가공식품 수출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고추장·조제분유·과자류 등의 수출이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 고추장과 과자류 수출은 중국·미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였다.

- 한류 드라마 확산, 지난해 7월 중국 평리위안 여사 방한시 고추장 구입 등의 영향으로 중국 베이징·상하이 등 한식당이 많이 분포한 도시를 중심으로 고추장 소비가 증가하였다.

* '14년 고추장 수출액(28.8백만불, 전년대비 18% 증가): 미국 9.2백만불(1% ↑), 중국 4.3(97 ↑) 캐나다 1.6(9 ↑), 호주 1.2(7 ↑), 일본 3.4(△8)

- 중국의 유아용 과자류 수요 증가와 미국의 저칼로리·저염·글루텐프리(Gluten free) 등 웰빙 간식 선호 증가에 힘입어 우리 쌀 과자를 중심으로 과자류 수출이 증가하였다.

* '14년 과자류 수출액(152.0백만불, 전년대비 15% 증가): 중국 48.7백만불(29% ↑), 미국 24.2(3 ↑) 일본 12.6(1 ↑), 대만 9.7(5 ↑), 홍콩 10.8(△10)

○ 조제분유 수출은 중국의 유아 관련 시장 급성장에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다변화 노력이 더해져 전년과 비교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아시아인 체질에 맞는 유제품, 유산균 함유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홍보·판촉을 강화했다.

- 또한, 최근 FTA를 타결한 베트남에서도 한국산 조제분유는 합리적 가격과 품질, 안전성에 대한 신뢰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 '14년 조제분유 수출액(91.0백만불, 전년대비 30% 증가) : 중국 75.4백만불

(34% ↑), 베트남 9.4(54 ↑), 사우디아라비아 4.3(70 ↑), 캄보디아 1.1(△15)

□ 신선농산물은 對일본 수출 비중이 24.6%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엔저의 영향으로 김치·화훼·파프리카 등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딸기·단감·배의 수출 증가로 '11년 이후 4년 연속 10억불 이상의 수출기록을 달성하였다.

○ 딸기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미국산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높은 당도와 맛을 무기로 수출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 '14년 딸기 수출액(33.4백만불, 전년대비 12% 증가): 홍콩 11.6백만불(4% ↑), 싱가포르 11.1(20 ↑) 말레이시아 3.6(12 ↑), 태국 2.7(5 ↑)

○ 배는 지난해 7월 멕시코와 검역협상을 타결하고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을 시작하였고, 주력시장인 미국도 교포 중심에서 현지인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였다.

* '14년 배 수출액(63.2백만불, 전년대비 15% 증가): 미국 29.2백만불(19% ↑), 대만 26.8(4 ↑) 홍콩 1.3(106 ↑), 멕시코(6톤, 15천불 순증)

○ 단감은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강점을 바탕으로 동남아 수출이 확대되었다.

* '14년 단감 수출액(12.9백만불, 전년대비 24% 증가): 말레이시아 4.6백만불(8% ↑), 홍콩 1.7(86 ↑) 싱가포르 1.7(4 ↑), 필리핀 1.7(64 ↑)

○ 인삼은 '09년 이후 꾸준히 1억불 이상 수출하는 주력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중국삼 가격인상으로 홍콩에서는 가격대비 품질이 좋은 한국삼 선호가 증가하였고, 일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삼드링크 수요가 늘어나 '14년 한해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보였다.

* '14년 인삼 수출액(183.9백만불, 전년대비 5% 증가): 홍콩 46.6백만불(6% ↑), 일본 36.4(13 ↑) 대만 25.2(20 ↑), 미국 14.3(12 ↑), 중국 36.9(△5)

■ 2015년 농식품 수출정책 추진방향

- 농식품부는 '15년 농림축산식품 수출목표 77억불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의 범정부 수출개척협의회를 중심으로 ① FTA를 활용한 對중국 수출 확대 ② 아세안·할랄 등 거대시장 공략, ③ 검역·위생 등 비관세장벽 대응강화, ④ 기업의 수출 노하우와 역량 활용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홍보 및 판촉 지원도 K-FOOD 페어, 박람회, 재외공관 지원사업을 연계한 체계적 추진을 통해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1 > 對중국 수출확대

- (FTA 활용)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농관원·관세청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GAP 등 농관원 인증 농산물의 원산지 증빙을 간소화(14.11.28, 농관원-관세청간 MOU)하고,
 - 농식품부·산업부·관세청간 협업으로 개발된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해 수출농가·업체의 활용 확대를 위해 교육·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FTA 체결국별 원산지 인증 절차 정보 제공, 원산지 확인서 보관 등 편이 제공
- (정보조사) 중국 주요 省별·도시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박람회 등 판촉 강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베이징 · 상하이 · 광저우 · 심천 등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aT, KOTRA 등을 통해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 수출 유망품목은 aT · KOTRA 등을 통한 판촉 활동과 현지 진출 유통기업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한다.
 - 對중국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된 5개 품목(인삼 · 화훼 · 버섯 · 유자차 · 유제품)은 품목별로 상품화 ·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 (통관지원) 중국의 수출자 등록 · 라벨링 등 통관 강화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중국 국영기업인 CCIC(중국검험인증집단)를 활용한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 (물류기반 구축) 2월중 ‘청도 수출 물류기지’를 중심으로 對중국 농식품 콜드체인(Cold chain)도 구축된다.
- 청도 수출 물류기지와 중국 內 7개 공동물류센터*, 중국 주요 항만 보세창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물류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 현지 물류업체와 협약을 통해 창고 이용료 할인, 이용료의 80% 국고 지원 (베이징 · 상하이2 · 충칭 · 성도 · 청도2)
- (판매채널 확대) 기존 판매채널 외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과 유명 백화점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개설을 확대, 한국 농식품의 중국 프리미엄 식품 시장 진출을 공세적으로 추진한다.
- 온라인은 기 진출한 ‘1호점(B2C)’과 ‘알리바바(B2B)’ 외에 ‘티엔마오(B2C)’ · ‘위마이왕(B2C)’ 등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 2월중 산둥성 연태시를 기점으로 연내 베이징 · 상하이 · 광저우 ·

심천 등 중국 1선 도시 전역의 유명백화점에 우리 농식품 판매관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 2 > 아세안 등 할랄* 식품시장 진출 확대방안

* 할랄(Halal) :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란 의미,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
 (약 18억명 추정)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을 총칭

□ 할랄 식품시장은 ‘12년 1조 880억달러 규모로 추정, ‘18년은 1조
 6,260억달러(세계 식음료 시장의 17.4%)로 성장 전망

○ 동남아시아 4,060억달러, 중동·북아프리카 시장이 2,370억달러에
 달한다.(단일 국가로는 인도네시아가 1,970억달러로 가장 큼)

□ 금년에는 aT·KOTRA·재외공관 등을 활용하여 할랄식품
 시장 동향·수출유망품목·할랄인증 정보 조사를 추진하고,

○ 두바이 등 중동 국제 식품박람회 우리 식품기업의 참여 확대
 (‘14년 39개 → ‘15, 58), 안테나숍 개설 등으로 홍보·판매를 지원한다.

□ 할랄 인증 지원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을 할랄 전문 연구기관
 으로 지정하고, 할랄 인증비용 지원 확대*, 국내외 할랄인증
 기관간 인증 동등성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12년) 등록비용의 50% → (‘13) 70% / 한도 20백만원 → (‘14) 90 / 20

** 인도네시아 MUI와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간 동등성 추진중(서류심사 완료/‘14.10월)

*** 말레이시아 JAKIM과 한국이슬람중앙회간 인증 갱신기간 연장 합의(‘14.11월)

□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內 할랄 전용 생산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할랄 식품기업의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예 : (말레이시아) 30여ha의 할랄 전용 공단 설립(JAKIM 산하 할랄개발공사 주도),
 (중국) 쑤닝에 할랄 전용공단 설립

-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는 할랄시장의 중간 유통지로 성장 중, 중동 할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동남아를 활용하기 위해 할랄인증 등 협력 추진

< 3 > 검역·위생 등 농식품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 FTA 확대 등 무역자유화 진전으로 농식품의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검역·식품위생기준 등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이 필수적이다.

- * WTO 통보건수('13년) : 3,986건 (식품안전867, 동물보호249, 식물보호234, 질병·해충으로부터 동·식물·영토보호1,010, 기술무역장벽 1,626)
-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제정, 중국 수출기업 등록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항구 신선농산물 수입제한, 중국 김치·삼계탕 수입위생기준 등

□ 농식품부는 이러한 검역·식품위생기준 등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응,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식품 SPS 협의회*」를 구성하고,

- * 구성(안) : (위원장)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위원) 관련기관 과장급

- 동 협의회를 통해 각국의 WTO SPS 통보문과 수출현장의 검역 관련 애로사항을 식약처·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 관계기관의 검역 식품위생 현안 관련 협상 등 추진상황을 점검, 필요시 범부처 차원의 추가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농식품 비관세장벽 현황과 관계기관 대응상황을 수출농가 및 업체와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 KATI(농수산물 수출지원정보, aT 운영)를 중심으로 농식품 통상협상 지원 서비스(농정원)와 유관기관 온라인 서비스* DB를 통합·연계하여,

- * 통합무역정보서비스(산업부), 비관세장벽포털(무역협회), 글로벌윈도우(코트라) 등

○ KATI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수출농가 및 업체에 제공한다.

< 4 >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수출 확대

□ 기업의 수출역량과 노하우를 농식품 수출에 접목하기 위해 기업과 농업계간 상생협력을 통한 수출모델도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킬 계획이다.

○ 해외에 진출한 롯데마트* · CJ 홈쇼핑 등 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우리 농식품 수출에 적극 활용하고,

* 롯데마트와 국산 농식품의 국내 판로 및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MOU 기 체결('14.11.19)

○ 대기업 퇴직인력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 경영자문단*을 운영,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등의 수출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대한상의 內 운영 중인 중소기업경영자문단(대기업 퇴직인력 활용)에 농식품 특별반 신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15. 1. 15.)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국내 사육 염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개발

- 염소개체식별시스템 특히 출원...불법 유통 막고 개량 가능할 듯 -

농촌진흥청은 국내 염소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염소 개체식별시스템’을 개발했다.

염소는 한의학에서 뇌를 차게 하고 피로와 추위를 물리치고 위장을 보호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알려져 보양식으로 애용돼 왔다. 참살이 식품에 대한 관심과 외식산업의 발전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여기에는 수입육이 한몫을 차지한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염소고기의 국내 생산량은 계속 줄고 있지만, 수입량은 점차 늘어 2012년에는 789톤을 들여왔다. 또, 염소 생산·가공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불법 유통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현재 국내에서 기르는 염소를 모두 구분할 수 있는 개체식별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출원¹⁾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염소 유전체에 존재하는 초위성체²⁾ 마커 분석으로 개체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같은 개체가 나타날 확률이 1.88×10^{-16} 에 달해 국내에서 사육 중인 25만여 마리를 각 개체별로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현재 염소 사육 농가에서는 개체관리와 혈통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혈통정보를 바탕으로 계획교배를 할 수 있어 국내

1) 특허명 : 염소 개체 식별용 초위성체 마커, 특허출원번호: 10-2013-0136561

2) 2개~6개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구조로 유전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전정보가 풍부한 영역임

염소의 성장, 도체³⁾, 번식 형질 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염소 고기의 불법 유통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염소의 불법 유통을 막고 개량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위해 관련 협회, 농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온실가스, 차량 이동형 측정 장치로 바로 진단!

- 첨단 장비 탑재로 축산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 -

농촌진흥청은 축산 현장의 온실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차량 이동형 온실가스 측정 장치’를 개발했다.

가축 분뇨 등 축산 현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측정 시간과 기온에 따라 변화가 심해 연중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 동안에는 현장의 공기 시료를 채취한 뒤 실험실로 옮겨서 분석하느라 시료의 양과 운송 시간 등 제약이 많았다. 또,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보다 계산식에 의존함으로써 검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측정 장치는 야영 차량 형태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하며, 한 곳에 머물며 장기간 측정하는 연구의 근거지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차량 안에는 시료 분석 장치가 설치돼 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는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표본 당 20분 안에 분석한다.

수동 분석은 물론 가스를 빨아들이는 관을 이용해 연속으로 자동분석도 가능하다. 미량가스분석기(TGA)는 연속 측정 시, 1초에 10회 이상 분석할 수 있어 시시각각 변하는 온실가스 배출 유형을 연구할 수 있다.

3) 도축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

두 분석기를 동시에 이용, 측정하면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수치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을 통해 분석된 자료들을 연구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을 분석·측정해 현실에 맞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 부문 온실가스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 자료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시설과 기술이 부족해 온실가스 측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나 농가 등에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유용하고 품질 좋은 활동 자료를 모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현장에서 바로 결과값을 볼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경지 토양 수분,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 농촌진흥청, 토양 수분 측정 정보 웹서비스 시작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농경지의 토양 수분 현황과 변동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농업기상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농경지 토양 수분 정보를 제공한다.

농경지의 토양 수분 정보는 전국 100개 지점의 땅 밑 10cm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측정한 값과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비교·보정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공한다.

※ 총 124개 지점 중 전문가 검토와 품질 관리를 거친 100개 지점 우선 공개 서비스(2015.1.15)

토양 수분 정보는 토양 중 수분이 차지하는 부피 비율(%)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5%에서 50%의 범위를 보인다. 토양 수분 값이 낮을수록 생육에 필요한 토양 중 수분 함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양 수분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서비스(<http://weather.rda.go.kr>)-농업기상관측에서 ‘농업기상(농촌진흥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는 토양 수분 센서가 설치된 해당 시군의 토양 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농업용수 관리와 연구 기관들이 농업용수 관개 계획, 가뭄 해석, 작황 예측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가뭄을 진단할 때 기존의 기상 자료만을 활용한 것보다 더 정확한 농업 가뭄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농촌진흥청

6. 정책동향

◆ 전남도 공급과잉 겨울배추 시장격리, 가격 안정 기대

- 전남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와 공급과잉으로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겨울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542ha(정부 406, 자율 136)에 대하여 오는 1월말까지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시장격리 희망농가에서 1월 16일까지 거주지 시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1월 21일까지 시군별 면적을 확정하고 한파 등에 대비하여 1월말까지 산지에서 관리한 후 2월 1일부터 산지격리할 계획이다.
- 정부 시장격리 대상은 상품성이 있는 겨울배추 포전으로 농협과 계약재배 포전은 10a당 938천원을, 비계약 포전은 10a당 750천원을 농가에게 지원한다.
- 道는 농업인이 애써 생산한 배추를 시장격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소비감소와 작황 호조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수급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시장 격리가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남도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6.8% 감소한 3,567ha로 전국 재배면적 3,885ha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15. 1. 13현재 도매시장 가격은 포기당 916원으로 전년 1,176원, 평년 1,752원 보다 각각 22%와 47% 낮게 형성되고 있다.

◆ 가축분뇨 처리사업 신청 하세요!

- 전남도는 악취없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2015년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시군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사업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대규모 30억원, 소규모 15억원)과 농장 단위정화처리사업(농장당 2~3억원)과 미생물생산사업(개소당 2억원)이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공동으로 처리하여 퇴비와 액비를 생산하는 사업이며, 농장단위정화처리사업은 농장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양돈분뇨를 순환처리하는 “원 시스템”사업이며, 미생물생산사업은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에서 가축분뇨 정화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양돈)농가 및 농업법인, 농축협 등은 2015.1.25까지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한편, 전남도는 2015년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을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동안 가축분뇨공동처리장 11개소, 액비유통센터 33개소, 액비저장조 1,533개소, 부숙도판정기 22대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매년 13천ha의 액비살포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전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정책 보험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최종 수확기까지 발생

하는 수확량 감소분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는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 가입대상 품목은 벼, 감, 배, 밤, 시설작물 등 46개 품목이며, 올해 부터는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가입자격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 보험 가입시기는 품목별 영농시기를 감안하여 사과·배·단감·시설 작물은 2월 23일부터, 벼·밤·대추는 4월, 고구마·옥수수는 5월에 가입할 수 있으며, 품목별 그 시기는 시군, 농협 등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지난 해 전남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실적은 25,359농가, 45,459ha에 가입을 했고, 태풍·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2,153농가에게 7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 보성 조성면 김○○씨는 벼 재해보험에 6.4ha를 가입하여 작년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 40%의 벼 피해 발생에 대하여 농작물재해 보험료 농가부담금 50만 원의 11배인 630만 원을 수령했다.
 - 나주시 봉황면에서 배 농사 2.8ha를 짓고 있는 천○○씨는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자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954만 원의 8배인 8,165만 원을 수령했다.
 - 또한, 6월 초 돌풍으로 인해 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11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의 124배인 1억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 전남도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만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 수준이므로 대형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안정에 보다 유리하다고 한다.

◆ **농업정책자금 3조 2천억 원에 대해 금리 인하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용자사업(잔액기준 3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금리를 '15년 1월부터 인하하여 적용기로 했다.

<금리인하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기존금리	변경금리	대출잔액	'15년 지원규모	농가이자 경감내역	비고
농기계구입자금	3%	2%	22,362	11,763	228	
귀농인창업지원자금	3%	2%	2,995	1,000	32	
긴급경영안정자금	3%	1.8%	3,920	-	31	
축산경영종합자금	3%	2%	797	1,116	12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3%	2%	9	300	2	
*농업경영회생자금	3%	1%	1,418	600	31	
계			31,501	14,779	336	

* 다만,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제5조의 2)」 공포 시부터 적용

-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금리 인하 조치로 매년 약 336억 원 이상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 효과(농가 호당 매년 약 20만 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추가금리 인하, 지원조건 개선 등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세부 실천계획 발표

- 농업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실천을 위해 6차산업화, 첨단화·규모화, 정예인력 육성, 수출확대, 행복한 농촌 만들기 등 5개 실천계획 선정
- ① (6차산업) 1차형 산업구조를 6차형 구조로 전환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 확대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충(30개) 및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6차산업 경영체 1:1맞춤형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29개소) 확충
 - 농업진흥지역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등 농지제도 합리화 및 산림규제(사유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제) 완화
- ② (첨단·규모화) ICT기반 첨단화 및 주산지중심 생산·유통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시설원예 ICT보급(원예 350ha), 스마트 팜 맵(인공위성 이용 농경지 지도)을 활용한 실제 경작 확인·재해피해 조사 및 인공위성 이용 작황 예측시스템 개발
 - 쌀 들녘경영체(15년, 200개소/40천ha) 및 발작물 주산지 육성(20개 품목, 241개 주산지)
- ③ (정예인력) 농고·농대 현장인력 육성 강화 및 농업분야 인력 20만명 증대
 -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 전환, 농대 내 영농창업특별과정 설치 추진
- ④ (수출확대) FTA 활용 및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 77억불 달성
 - 할랄식품 시장 심층조사·정보제공 및 인증지원 강화, 우리 농식품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 검역·위생·원산지 등 비관세장벽 해소

- 상생협력 사례 본격 확산 위해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 및 참여 기업 인센티브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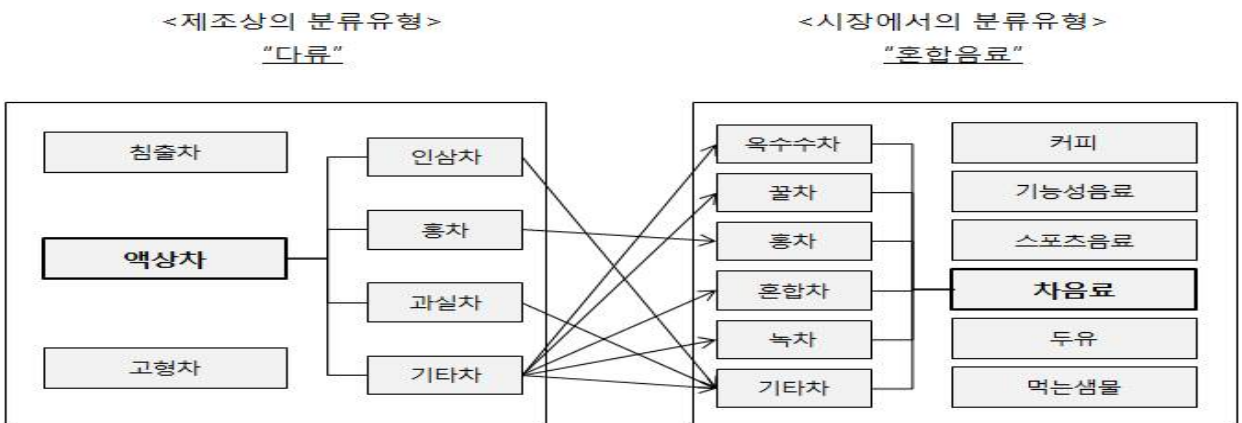
⑤ (행복농촌)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 귀농·귀촌인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20지구) 및 2030 귀농지원(‘귀농인의 집’·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우대, 농지구입, 정책자금 지원 등)
- 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15개소), 주거취약지구 개선 프로젝트(1,200가구), 고령자공동이용시설(71개소), 행복버스(50회), 농촌형 교통모델(19개)

◆ **액상차 시장 5년간 83% 증가. 소매 유통은 편의점이 약 60% 차지**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액상차에 대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액상차 분류 》



* 액상차 용어에 대한 일관성을 위해 차음료라는 용어 대신 액상차로 제시함

○ 이번 보고서는 개별 가공식품의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입·분석하여 품목별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여 이번 보고서까지 총 42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10) 김치 등 8품목, (‘11) 빙과 등 5품목, (‘12) 비스킷 등 12품목, (‘13~) 17품목

□ (생산액 추이) 액상차 생산량은 2008년 약 18.7만톤에서 2013년 37.9만톤으로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생산액도 약 2천 5백억원에서 4천 6백억원으로 83% 증가하였다.

○ 액상차는 ‘다류’ 전체 생산량의 87.7%, 생산액 기준으로는 59.0%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량에 비해 생산액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액상차 국내 생산 규모 》

연도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2008	187,204	253,981
2009	193,997	274,151
2010	183,950	435,885
2011	256,434	413,485
2012	399,587	433,329
2013	378,791	464,969

* 연도별(2008~2013)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하액 추이) 연도별 액상차 출하량은 2008년 약 15.7만톤에서 2013년 22만톤으로 약 42% 증가하였으며, 출하액은 2008년 약 2천 7백억원에서 2013년 4천 7백억원으로 약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액상차 국내 출하 규모 》

연도	출하량(톤)	출하액(백만원)
2008	157,327	271,914
2009	173,437	310,069
2010	167,182	347,050
2011	194,156	424,037
2012	236,799	489,987
2013	223,529	468,021

* 연도별(2008~2013)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매 유통 추이) 소매 유통 채널별 매출액 통계(POS, 닐슨컴퍼니 코리아)에 따르면 2013년 액상차의 소매 유통 채널 매출액은 약 2,679억원이며, 편의점이 전체 매출액의 5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매 유통 채널별 매출액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2년 합계	2013년 합계	2014년 3/4분기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편의점	29,515 (57.5)	39,717 (57.9)	49,616 (59.0)	38,040 (59.5)	30,528 (58.2)	41,999 (60.1)	48,032 (59.5)	156,349 (58.2)	156,888 (58.6)	120,559 (59.3)
일반 식품점	9,750 (19.0)	12,585 (18.3)	15,906 (18.9)	12,903 (20.2)	10,285 (19.6)	12,563 (18.0)	15,448 (19.1)	51,655 (19.2)	51,144 (19.1)	38,296 (18.7)
독립 슈퍼	4,274 (8.3)	6,015 (8.8)	6,722 (8.0)	4,686 (7.3)	4,131 (7.9)	5,947 (8.5)	6,483 (8.0)	20,952 (7.8)	21,697 (8.1)	16,561 (8.2)
할인점	4,341 (8.5)	5,262 (7.7)	5,918 (7.0)	4,167 (6.5)	4,055 (7.7)	4,878 (7.0)	5,467 (6.8)	20,290 (7.6)	19,688 (7.3)	14,400 (7.3)
체인 슈퍼	2,943 (5.7)	4,487 (6.5)	5,338 (6.3)	3,610 (5.6)	3,020 (5.8)	4,124 (5.9)	4,820 (6.0)	16,950 (6.3)	16,378 (6.1)	11,964 (5.8)
백화점	485 (0.9)	545 (0.8)	579 (0.7)	490 (0.8)	404 (0.8)	389 (0.6)	445 (0.6)	2,263 (0.8)	2,099 (0.8)	1,238 (0.6)
합계	51,309	68,610	84,079	63,895	52,423	69,901	80,696	268,459	267,893	203,020

* (출처)닐슨컴퍼니 코리아

□ (소비시장 추이) 2014년 3/4분기까지의 매출액 기준, 옥수수차가 23.9%로 가장 잘 팔리고 있었으며, 홍차(13.5%), 꿀차(6.9%) 순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옥수수차, 홍차, 꿀차의 매출 비중은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 새로 나오는 액상차(예. 헛개차, 마테차 등)가 많아지면서 기타 액상차의 비중이 2012년 35.2%에서 2014년 3/4분기 45.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차 종류별 소매시장 매출점유 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3/4분기까지
옥수수차	67,044(25.0)	66,165(24.7)	48,458(23.9)
홍차	47,434(17.7)	41,613(15.5)	27,493(13.5)
꿀차	21,436(8.0)	18,613(6.9)	13,929(6.9)
혼합차	24,707(9.2)	19,260(7.2)	11,441(5.6)
녹차	13,468(5.0)	13,557(5.1)	8,691(4.3)
기타	94,371(35.2)	108,684(40.6)	93,007(45.8)
합계	268,459(100.0)	267,893(100.0)	203,020(100.0)

* (출처)닐슨컴퍼니 코리아

- (국내시장 동향) 액상차는 경기 변동이나 날씨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소비 트렌드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유행이 급격히 바뀌는 특징이 있어 새로운 원료(예. 헛개, 마테, 메밀, 도라지 등)를 사용한 액상차 및 칼로리 제로 액상차 등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 소비자들이 직접 과일 음료를 만들어 음용하는 ‘홈메이드 과실 에이드’, 디톡스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과실청’ 등이 새로운 음료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동향) 해외 액상차 시장은 1가지 원료가 아닌 여러 원료를 혼합한 형태의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유기농·공정무역·항

산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탄산이 들어간 제품도 많이 유통되고 있다.

- 2013년 기준 1조 3,466억엔 규모인 일본 액상차 시장은 녹차(47%), 홍차(20%)가 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 중국은 2013년 기준 1,037억 위안 규모의 액상차 시장으로 2008년 498억 위안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밀크티, 허브티, 녹차, 홍차, 우롱차 등 다양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 중국 액상차 시장 규모(억 위안)

(‘08) 497.5 → (‘09) 588.4 → (‘10) 690.3 → (‘11) 773.6 → (‘12) 862.3 → (‘13) 1,037

- 미국의 액상차 시장도 꾸준히 성장세를 나타내며 2013년 50억 달러를 나타내었다. 특히 비교 국가들과는 달리 탄산이 들어있는 액상차의 점유율이 8.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국 액상차 시장 규모는 1,276만 파운드이며(2013년 기준), 대부분 홍차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2013년 기준 Euromonitor International

7. 해외 농업정보

◆ 미국의 에탄올 가격, 사상최대 공급증가로 9년래 최저치 달성

미국의 에탄올 선물가격은 근 2년래 사상최대 공급증가로 근 10년래 최저치로 하락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1월9일 주간 에탄올 재고량은 1.28백만 배럴 급등한 20.23백만 배럴이라고 한다. 주간 7% 이상의 공급증가는 에너지정보청이 2010년부터 데이터를 조사한 이후 최대치이다. 평균 일일 에탄올 생산량은 29,000배럴 증가한 978,000배럴이다.

한편 원유 및 휘발유 가격 급락은 대체관계에 있는 연료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 에탄올의 공급급등은 휘발유에 대한 프리미엄을 낮추고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를 억제한다.

2월 선적분 에탄올의 시카고선물가격은 8.4%, 즉 11센트 하락한 갤런당 1.29달러이며 이는 2005년 6월이후 최저수준이다. 휘발유에 대한 에탄올의 프리미엄도 갤런당 약 4센트 감소하여 3주래 최소치를 기록하였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15.1.1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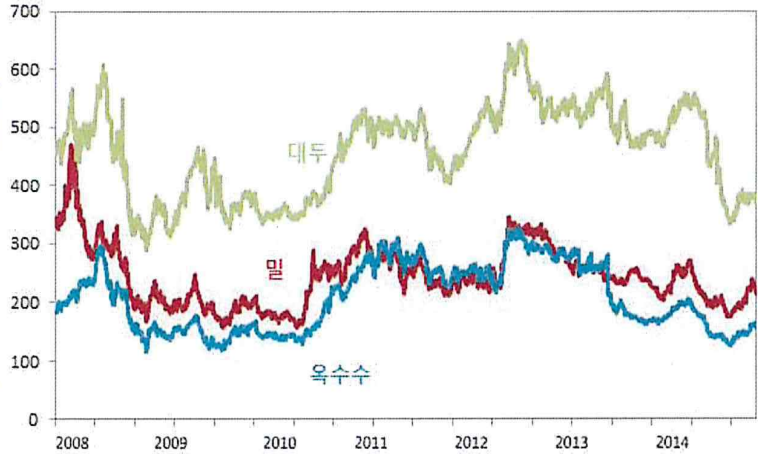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1.16 (시카고 선물거래소)

밀가격, 4주연속 하락세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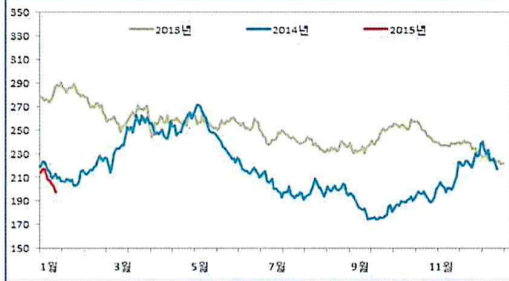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5.1.15)	전일대비	전월평균 ('14.12)	2014 평균
밀	195.69	▼0.9%	226	216
옥수수	149.60	▼0.3%	156	164
대 두	364.12	▼1.8%	379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옥수수:3월물, 대두:1월물) 정산가격임.

● 밀 선물시장 현황



밀가격은 4주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미국의 밀 파종은 예상보다 저조한 편으로 총 2백만 에이커에 대해 파종이 이루어졌으며 밀 파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에는 올해 말 대두파종이 이루어지고 밀의 봄파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옥수수 선물시장 현황



옥수수가격은 풍부한 세계 옥수수재고량에 따라 약보합 마감했음. 한편 미국정부는 미국산 옥수수의 에탄올에의 사용증가 전망 및 옥수수 수확 감소에 따른 재고감소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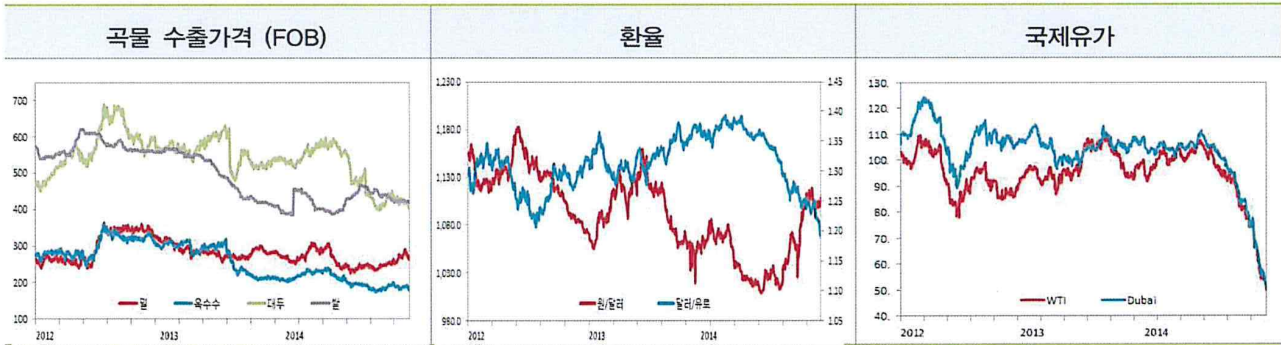
● 대두 선물시장 현황



대두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음. 12월1일 기준 미국은 지난해 최대 수확에 이어 현재까지도 최대 대두공급량을 보이고 있음.

관세 및 환율

- 곡물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WTI 선물유가는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 유로화 대비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했으나 미국 원유재고 증가소식, 세계경제 회복둔화 우려로 상승폭이 제한되었음.



구 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월평균 ('14.12)	2014 평균	2013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51	▼1.2%	275	261	284
	옥수수	176	▼3.8%	187	205	265
	대두	401	▼1.0%	419	501	556
	쌀	418	▼0.5%	421	425	488
환 율	원/달러	1,080	▼0.1%	1,053	1,053	1,095
	달러/유로	1,180	▲0.1%	1,37	1,33	1,33
국제유가 (US\$/barrel)	WTI	48.48	▲5.6%	59.32	92.97	97.94
	Dubai	42.55	▼1.7%	60.23	96.64	105.32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13(수출가격), '15.1.15(환율), '15.1.14(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이스라엘 민간 구매업자들은 3-5월 선적분 옥수수 약 100,000톤을 구매했으며 이는 CIF기준 192.25-193.25달러임.
- USDA에 따르면 미국 민간 수출업자는 유통년도 2014/15년도분 옥수수 105,000톤을 미공개지역으로 판매했다고 함.
- 한국전분당협회는 4월도착분 옥수수 55,000톤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을 발행했음.
- 러시아정부는 입찰에서 밀 8,505톤을 구매했으며 11월30일 이후 누적곡물구매량은 308,860톤이며 이는 3등급밀 17,685톤, 4등급 밀 49,140톤, 사료용밀 36,855톤, 제분용 호밀 91,530톤, 보리 113,650톤을 포함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15.1.16일자)

8. 고소득 농업사례

■ 신희찬 식품명인 전수자

- 수 백년 전통의 제다법,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

신희찬 전수자는 수백년 전통의 제다법을 계승하기 위해 아버지 뒤를 이을 결심이다. 식품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품 기획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과 농촌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분명 희망은 있습니다. 자꾸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식품명인 전수자인 신희찬(33) 씨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요즘 세대다. 그만큼 자기만의 철학과 신념도 확고하다. 그는 “예전 같으면 청년들에게 왜 농촌을 떠나는지에 대해 많이 물어보겠지만, 지금은 왜 농촌에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농업과 농촌이라는 공간과 공동체에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한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신희찬 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전통식품명인 제18호 신광수(야생작설차)씨의 아들이다. 전남 순천 승주읍에 있는 ‘명인신광수차’의 개발과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아버지 신 씨가 1999년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이후 2000년부터 대외적으로 전수자 지위를 갖게 됐지만, 그의 어린 시절 대부분은 집 근처의 차 밭에서 지냈을 정도로 아버지 신 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

신희찬 씨는 “아버지나 주변 분들이 전수자의 삶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제가 선택하게 됐다. 하지만 그 선택의 바탕에는 아무래도 성장 환경과 명인 아버지의 자긍심과 존경 등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광수 명인의 제다법은 선친, 그러니까 신희찬 씨의 할아버지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이 제다법의 역사는 수백년의 전통을 갖고 있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

신희찬 씨는 “우리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복원하고, 시연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없어지기 전에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다”며 “금전적인 부분만을 생각해선 여기서 버티는 것이 하루하루 힘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제다법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이를 넘어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 및 홍보·체험 행사를 기획하는 한편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도 차츰 시도하고 있다.

“초코송이라는 과자에 아무래도 초콜릿 성분이 많다보니 주부들이 아이들 간식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화이트초콜릿에 야생작설차 가루를 섞어 녹차 초코송이를 만들었더니 엄마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등 호응이 좋습니다. 또 매년 1번씩 개최하는 체험행사 성격인 팜파티(Farm-party)도 30~40명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희찬 씨는 “저와 함께 누나가 전수자로서 제품 기획과 홍보 및 마케팅 부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며 “차라는 상품을 이곳에 와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객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렇게 우수하고 좋은 상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올 한 해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무언가에 만족하기보다 늘 공부하고 배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또 단순히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통해 좋은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15.1.16일자)

9. 사업신청 안내

◆ 2015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 신청

- 기간/ 장소 : 각 시군별 공고 /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2ha미만 과수·채소 등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수도작 제외)
- 지원단가 : 농가당 1동 3평(9.9m²)기준 50%보조금 지원,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사업내용 : 9.9m²~33m²규모의 컨테이너·판넬식 냉동·냉장 저온저장고 설치
- 지원절차 : 지원대상 농가선정 → 시공업체 공모·선정 → 사업 설명회 개최(3월 이내) → 계약체결 → 사업추진(착공, 준공)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모든 자재는 가급적 KS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설치기준 준수

〈 설 치 기 준 〉

- 외관철판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 유니트쿨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단)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용량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대상자의 저장품목에 따라 냉동·냉장 등을 겸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가능

◆ 2015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 기간/장소 : '15. 1. 30 까지 /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 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 지원한도
 - 사업비 기준 단가 : 20천원/m²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 기간/ 장소 : '15. 1. 31 까지 /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지원형태

구분	보조	융자	자부담	이자율
- 준전업농, 전업농	30%	50%	20%	2%
- 기업농	-	80%	20%	1%(이차보전)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자금의 지원용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보조+용자 지원 대상면적	보조+용자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이차보전 지원 대상면적	이차보전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 천원/m ²	110~1,200	312백만원	1,201~	800백만원	
양돈(중돈, 인공수정포함)	660 천원/m ²	265~2,400	1,584백만원	2,401~	5,000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 천원/m ²	460~4,140	1,490백만원	4,141~	3,00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 천원/m ²	915~8,250	3,712백만원	8,251~	3,00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 천원/m ²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1~ (151~)	5,000백만원 (1,000백만원)
	산란계(산란중추포함)	720 천원/m ²	420~3,780	2,722백만원	3,781~	5,0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 천원/m ²	820~7,380	2,656백만원	7,381~	3,000백만원
	종오리	450 천원/m ²	555~4995	2,248백만원	4996~	3,0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 천원/m ²	33~300	450백만원	301~	3,000백만원
낙농	260 천원/m ²	213~1,920	499백만원	1,921~	1,000백만원	
양봉	180 천원/m ²	30~300	250백만원	301~	700백만원	
사슴과 엘크	180 천원/m ²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1~ (1,841~)	7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40 천원/m ²	165~1,485	324백만원	1,486~	700백만원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 2015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 신청

- 기간/장소 : '15. 1. 2 ~ '15. 2. 11 까지 /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융자한도(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개소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
- 융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 2015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내역

시군	매입품종	시군	매입품종
목포시	새누리, 일미	장흥군	새누리, 황금누리
여수시	새누리, 황금누리	강진군	새일미, 황금누리
순천시	새일미, 황금누리	해남군	일미, 새누리
나주시	새누리, 새일미	영암군	일미, 새누리
광양시	새누리, 황금누리	무안군	일미, 새누리
담양군	일미, 새누리	함평군	일미, 새누리
곡성군	새누리, 새일미	영광군	신동진, 새일미
구례군	새누리, 황금누리	장성군	새누리, 황금누리
고흥군	새누리, 미품	완도군	새누리, 황금누리
보성군	새누리, 황금누리	진도군	새누리, 새일미
화순군	새누리, 황금누리	신안군	새누리, 황금누리

주간

전남농업정보 18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2

Fax. 061-286-4782